

베드로전서 강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벵전 2:4~10)

반태호 목사 / 2004년 06월 11일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왔던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소유나 명성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마저 가져가버리고 맙니다.

노숙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IMF에 대한 충격이 가시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노숙자가 줄어들것 같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예수향기회' 사역만 해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어떤 노숙자의 경우는 겉모습은 너무나 말쑥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게 경제도 회복되었고, 그들에게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일하지 않고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보니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은 '거절감'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것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직장에서 버림받자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에 잠겨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며 점점 무기력해져갔고 자포자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고난

빅터 프랭크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운동선수 같은 건장한 사람이 잘 살아남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세워갔습니다. 스스로가 가치있고 의미있는 자라는 확신, 그리스도안에서 자신이 의미있는 자라는 확신을 되찾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미'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인지 아는 것, 자신의 삶이 가치있고 의미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가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은 이름, 세상에서 부르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참된 이름입니까?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참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나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가치있다고 하시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있다고 하시면 의미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며,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이름'이 진정한 '나의 이름'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스도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큐티를 할 때 중요한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핵심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핵심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이며, 그때 가지는 자신감이 진정한 자신감이므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과 담대함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우리를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드신 예수님을 성경은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신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에 우리 자신의 운명과 삶이 달려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만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산 돌', '모퉁이돌'

성경은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포도나무', '생명의 떡',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역경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4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산 돌, 보배로운 산 돌을 6,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택한 모퉁이돌'이라고 묘사합니다. 2천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건축기법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사이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기초를 놓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건물 앞에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박아 넣는 것이 요즘의 모퉁이돌입니다.

그런데 2천년 전에는 모퉁이돌은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건물은 주로 돌을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를 시멘트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돌들을 촘촘하게 쌓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모퉁이돌의 견고함만큼 건물의 견고함과 건물의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위로 쌓는 것은 모퉁이돌이라는 기초에 달려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모퉁이돌은 지름만 11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는 모퉁이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우리도 '산 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돌 위에 쌓여가는 돌은 건물이 됩니다. 모퉁이돌을 술집 건물에 놓으면 쌓여올라가는 돌은 술집이 되고, 모퉁이돌이 요새에 놓이면 쌓여올라가는 것은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모퉁이돌이 성전에 놓이면 쌓여올라가는 돌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돌이라는 것은 여기 쓰일 수 있고, 저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자가 그 돌을 가지고 요새를 쌓을 수 있고, 타락을 위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상의 전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모퉁이돌 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를 놓으면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하고 가치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이름의 뜻이 돌이기 때문에 모퉁이돌에 대한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 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곤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견고함, 그런 분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합니다. 견고한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변함없는 바위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바위산입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을 '시내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내산은 풀한포기 없는 바위산입니다. 나무와 풀이 있는 다른 산들은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시내산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돌이 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세상나라들의 모습을 우상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아주 크고 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입혀졌고,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입혀졌고, 그 나머지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굉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압도적이고 굉장해 보이는 것도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잘 깎인 뜨인 돌 하나가 신상 위에 부딪히자 신상이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서진 신상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듯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들도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제국, 정기스칸의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린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 선택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누명을 쓰고,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성도된 것이 소중한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소중한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도 물론 훌륭합니다. 사장, 박사, 교수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세상 기업의 창립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습니까? 건물을 세우는데 쓰인 돌이 아래 있느냐, 위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예전의 너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를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석위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21세기가 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인터넷이 더 활성화 되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돕니다. 얼마전에는 영국의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영국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인터넷 세상이 되어도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앞날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부와 국회도 쓰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맡은 일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산 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놓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의미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으시면 왕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인 '고레스'도 왕으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중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이름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교황이나 목사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는 사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할 일, 제사장의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교역자로 활동하는 일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만이 제사장의 일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모두가 제사장의 일입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밥먹고, 아이를 기르는 일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죽는 날 끝이 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목사의 기도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을 알게 됩니다.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을 전하고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상품만 접해도 선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전해야합니다. 특별히 전도에 훈련받은 자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2천/1만 비전은 선교적인 삶, 증인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일, 그 기회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없다면 세상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이 가져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의 운명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부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알라스카를 7백만불에 팔았을 때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잘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하루에만도 7백만불을 벌어들이는 석유와 자원의 땅이 알라스카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렇게 될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라스카를 버려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데, 예수를 버린 자의 삶은 어떨겠습니까. 음부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를 무시해도 별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세상을 즐겼다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아래 있는 것이 원래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더 이상 정욕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도 사역자입니다'라고 축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산 돌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온누리신문**